연합뉴스 2016.04.04

'사람과 자연의 상생'...고창군 '람사르습지 도시' 추진

(고창=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생태계의 보고인 '운곡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주변 마을을 '람사르습지 도시'로 가꾸어 가기로 했다.

고창군은 국가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을 올바르게 보전하고 이를 주민소득과 연결하고자 습지 주변 마을을 '람사르습지 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주민교육과 습지보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창군은 이를 위해 국비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들여 운곡습지 주변인 고창읍 부귀·매산·송암·호암마을과 아산면 용계·독곡마을 등 모두 6곳을 대상으로 '습지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역주민의 습지 인식을 높이는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할예정이다.

특히 습지 관리와 토지 이용 등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습지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국제적인 생태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게 되고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람사르습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이 '람

겠다"고 말했다.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제도는 작년 6월 우루과이에서 개최한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해 채택됐다.

환경부는 작년 10월 전국 21개 람사르습지를 대상으로 '람사르습지 도시' 후보지를 공모해 운곡습지 등 5곳을 선정했으며 평가를 거쳐 내년 7월에 최종 후보지를 뽑아 람사르사무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sungok@yna.co.kr